

“사람은 진리에 의해 살고...”

보조제정은 당 유학후 보림사 개창



보림사의 실질적 개창주로서 가지산문의 제3조이며 영가화상에게서 법을 이어받은 보조 제정 선사(804~880). 용진(충남 공주) 출신으로 어릴 때 출가해 도의(道義)의 법을 전해받아 스승을 가르침을 펴고 있던 열거를 찾아가 그의 인가를 받은 도의의 손 제자다.

837년(회강왕 2)에 동료인 정육, 어희 등과 함께 바닷길로 당나라에 들어가 여러 선지식을 찾아 밟고 840년(문성왕 2)에 다시 신라로 들어왔다. 귀국 후 많은 신도들의 귀의를 받았으며 858년(헌안왕 2)에는 무주의 황야(黃野)에 주석하며 교화를 폈다. 그 때 스님은 헌안왕의 권유로 가지산사로 옮겨 터를 잡고 860년에 대찰을 창건하여 가지산파의 중심사찰로 발전시켰다. 880년 세속나이 77세, 법랍 52세로 입적한 스님은 현강왕이 유사에 명하여 시호를 보조, 탑호를 창성, 절 이름을 보림이라고 해서 비문을 짓게 해 후대에 회자되었다.



보림사 경내. 오른쪽 대웅보전은 조선초 중흥건물 형태를 띠고 있다. 가운데는 사천왕문. 왼쪽은 보조제정의 창성탑비로 9세기 말경 석비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참선기행단은 가지산문 중찰 보림사에서 총무 원담스님의 지도로 참선에 들었다.

구산선문 참선기행

4월 - 가지산문

불교의 이해없이 한국문화를 논할 수 없다. 그렇듯 선종의 이해없이 한국불교를 논할 수 없다. 참선기행단은 신라말 고려 초 사회·정치적 격변기에 불교의 새로운 사상으로 자리잡게 된 선종의 맥을 찾아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인인 가지산문을 찾아 나섰다.

일탈을 꿈 꾸 왔을 사람들. 버스에 몸을 실어 일상에 벗어난 듯 했지만 마음 속에 여전히 갖가지 망념을 안고 왔을 기행단은 침묵 참구하는 동안 어느새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느낀다. 열린 마음은 망망대해처럼 차별심이 없고 온갖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도의선사가 가지산문을 연

이후 강조한 '성(性)과 상(相)이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폭하면 뜻이 일어난다(心定體轉)'는 화두로 통찰 것 같다는 추측도 해 본다. 어둠이 걷히고 미명(未明)이 감싸안은 가지산문의 중찰 보림사는 미국 하버드대학 연경도서관에 있는 '신라국 가지산 보림사 사적'에 보조 제정 이전에 원표라는 스님이 보림사를 창건하였다고 적고있어 창건주에 대한 궁금증이 서려 있는 곳이다. 보림사는 일주문과 사천왕상만으로도 한 눈에 고찰임을 느끼게 한다. 8백 여년의 모진 세월을 가지산과 함께 승려이 온 사천왕상은 대형 목조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천왕상이다. 그 모양새가 크고 우락부락하지만 보림사를 찾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안겨 준다. 일주문, 사천왕문을 지나 곧바로 보이는 대적공전은 현재의 명부전에서 옮겨 오면서 미처 단청불사를 하지 못한 듯하다. 오해의 단장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눈길을 끈다. 안에는 상공이 도래되면서부터 비로자나불이 주불로 모셔진 사실을 구산선문의 답사에서 확인했다. 그 김호연 고미술연구가와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칠재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이 보조 제정선사(804~880)가 주석하던 당시부터 함께 하고 있다. 칠재비로자나불좌상의 왼쪽 어깨에는 불상 조성 기록(858년)이 새겨져 있다.

비로자나불은 어둠이 없는 광명전조(光明顯照)를 의미하며 선(禪)이 지향하는 차원을 상징한다. 비교적 복잡한 육계(肉髻), 달걀형이면서 비만한 얼굴, 편편한 콧잔등, 가늘고 긴 눈, 사다리꼴의 두드러진 인중, 작은 입 등 기하학적인 특징으로 묘사된 보림사 칠재비로자나불좌상이 웃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를 가히 짐작케 한다. 그 비로자나불의 가피일까. 비로자나불이 지켜보는 앞마당에 마주 서 있는 삼층석탑과 석등(국보 제44호)은 현존하는 통일신라 시대 석탑이나 석등 가운데 매우 드물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제정선사 창성비 53자 계송 마음 열어주고 주불 비로자나불은 사바세계 광명 비추네



연표어이라는 창건 역사와 함께 하는 일주문. 가지산 보림사 라고 써여있는 판액이 한 눈에 고찰임을 짐작케 한다.



비로자나불(국보 117호).

“사람은 진리에 의해서 살고 진리는 사람에게 의해서 존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에 의해서 사는 가운데 크게 이루어짐이 있음을 모르고 진리 또한 사람의 생활 속에 깨달음의 상태가 있음을 지버린다. 어찌 그릇됨이 아니라. 그릇됨을 그릇됨으로 알면 그릇됨이 아니라. (衆生爲舍那 舍那爲衆生 衆生不知舍那法界之中 衆生不知衆生在舍之內 濕然宿疑 豈非迷也 如此迷者 大不迷矣)”

보조 제정선사 창성탑비에 수록된 53자의 팔각한 사나(舍那)는 귀경 버스에 오른 기행단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다. 선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으며, 면면히 이어온 선의 전통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음을 느끼며 귀경길을 재촉했다. 글=도담선 가지 (psdo@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가지 (ybgo@buddhapia.com)

운주사 와불·칠성바위등 천불천탑 불거리

황룡군 학내(현연구사(전남대)의 안내로 운주사를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사바위에 오른 답사객들은 황 연구사의 설명에 기초하며 바라다보다 보니 무질서하게 보이던 불상과 탑들이 꺾음으로 맞춰가듯 '어떤 질서'를 찾아가는 것을 느낀다. 대웅전 오른 쪽 산등성이에 있는 칠성바위, 일곱개의 크고 작은 바위의 배열과 크기가 영락없이 북두칠성의 방위각과 밝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이럴 수가...” 연신 터져 나오는 감탄사를 막은 것은 칠성바위에서 비스듬히 걸터 올라 서서 바라다본 두 구의 불상이 ‘금슬종계’ 나란히 누워있었다. 와불(臥佛)이 아니라 미처 깨닫지 못한 비로자나불좌상과 석가여래불상이다. 이 누운 부처님이 일어나는 날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민중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겨본다.

쌍봉사 국보 칠감선사 부도 조각예술 백미

장조 10년(1786년)에 이조판서 김홍수가 사직 비를 올 때까지만 해도 전각 등 건물이 4백여칸 있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일주문 안의 도량은 어떠한 아름다움까지 하다.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중건된 쌍봉사에서 답사객들은 정교하면서도 아름다운 조각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칠감선사 부도(국보 제57호)와 부도비(보물 제170호)를 만났다. 특히 부도비의 귀부는 매우 박적이고 기운찬 역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온돌발을 살짝 들어 막 앞으로 내디디려 하고 왼발로 땅을 짚어 걸어 당기는 모습이 마치 살아 있는 거북을 보는 듯 했다. 구름 속에서 여의주를 다루는 두 머리 용이 현란하게 새겨져 있는 이수도 눈길을 끈다.

사찰등(燈) 장업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의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연꽃잎 제조특허 연등

찬덕의 연등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 등)

(연 등)

1지역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 찬덕연등 장업사찰
조계사(서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봉사(광주), 동화사(광주), 깃바위(광주),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1. 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환해지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선하여 드립니다.
· 장업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분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훈공동 180-1 찬덕 연등제작사 대표 김기찬 합장

공 고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佛紀 2543년 3월 15일(양)에 개최된 이사회의에서 본 법인의 제3대 이사장에 보현정사 주지인 석정각 스님께서 이사천원의 찬성으로 이사장에 추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이 사장 보현정사	주 지 석정각
상임이사 보화정사	회 주 석탄공
이 사 석 금 암	이 사 석 일 화
이 사 석 창 법	이 사 석 불 안
이 사 석 혜 우	이 사 석 흥 안
이 사 석 선 중	이 사 진 각 화
이 사 석 도 명	
감 사 석 도 광	감 사 석 일 정

☎ 제3대 이사장 취임식
· 일자 : 불기 2543년 5월 8일(음 3월 23일) 11시
· 장소 : 논산 지장암 대웅전

재단법인 한국불교 법륜종 유지재단 사무소
충무 광진 재무 법원 사무장 김현태

충남 논산시 노성면 화곡리 44-7(지장암)
TEL : 0461)732-5629 733-5629
FAX : 0461)733-5628

佛 부처님 오신날 족

천안의 명산 태조산 줄기 입장 위례성 자락에 대한불교 천안명륜사 대웅전 창건과 부처님 오신날 불축 연등 축제에 동참하시어 부처님과의 인연공덕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대웅전 창건불사 봉축 연등축제”

부처님 오신날 창건 연등
대웅전 법당안 일년 가족등
포 상위령 1000일극락왕생등

유주,유유 선영들의 원혼들을 위로하여 자손만대 부처님의 자비로 한민족의 통일과 21세기 세계를 이끄는 신진국민으로서의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조상의 극락왕생 부모형제, 자녀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사원하시고 유생, 무생까지도 내 한 마음 속에 대자 대비심을 발원합니다.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대한불교 천안명륜사
총부처님 오신날 창건 연등
☎ 0417)553-6335, 6675
FAX 0417)553-2335

▶ 사내접수처
천안시 사직동 천일시장 50호 천일만물상회
0417)563-6145

국민은행 452-21-0951-943 천안명륜사
농협 485070-52-175917 천안명륜사